

결심 굳힌 권은희...박지원은 오늘 천정배와 회동

새정치 연말연시 분당 고비...광주·전남 다음 탈당의원은 누구?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뒷받침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의 잇단 탈당으로 사실상 분당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주 후속 탈당 의원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김동철, 23일 임내현 의원의 탈당 이후 잠시 탈당 움직임이 주춤한 가운데 연말연시가 되는 이번 주에 추가 탈당 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선, 광주에 지역구를 둔 권은희·박혜자·장병완 의원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탈당 기자회견을 예약했다가 취소한 바 있는 권 의원은 27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천정배 의원을 만난 것은 함경계 싸우는 후배에게 행동으로 응원해주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와 야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신뢰하는 선배 정치인을 찾아뵙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향후 거취에 관한 추측성 기사에 대한 해명 차원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또 "이후에도 시간을 갖고 깊은 이야기를 나눠왔으며 최근 만남을 통해 생각이 정리됐고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결심을 굳혔다"며 "실무적인 준비가 되는 대로 연말이나 연초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혜자·장병완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 공동 성명을 내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박 의원의 의정보고회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을 전후해 동반 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지역 정가에서 나왔다. 다만, 박 의원은 광주 시당 위원장, 장 의원은 당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어 마지막까지 통합 노력을 보이려고 해를 넘겨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탈당 흐름은 전남으로도 이어질 기세다. 우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신당파인 박주선 의원에 이어 28일 천정배 의원과 회동하기로 했다. 야권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도 보이지만 문 대표가 사

박혜자·장병완 최후통첩 공동성명

30일 전후 동반탈당 단행 가능성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도 탈당 검토

주승용 "의정보고회 후 거취 결정"

퇴를 거부하면 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 쟁기용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동교동계 좌장격인 권노갑 상임고문도 탈당을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교동계 한 핵심 관계자는 "권 고문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문 대표가 사퇴해 2선 후퇴하고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문대표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권 고문은 분열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호남민심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문 대표에게 많이 실망했고, 탈당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승용 의원의 탈당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내년 1월8일까지 예정된 의정보고회가 끝난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 탈당하라는 여론이 많고 또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원내대표, 권 고문, 주 의원이 탈당하면 다른 의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 탈당 행렬이 전남지역 전체로 퍼질 수도 있다. 광주 강기정 의원, 전남 김성곤·우윤근·신정훈 의원 정도를 뺀 모든 의원이 탈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역·기초의원들의 탈당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엔 광주 동구과 광산구의 기초 의원 7명이 탈당을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의 분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수도권 의원 간담회가 27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공정성장 위해 증세 불가피"

신당 '새정치' 기초 밝혀... "합리적 개혁노선 중심 세울 것"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7일 "새로운 정당은 낡은 진보와 보수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노선'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새정치' 기초 관련 기자회견에서 "1970년대 개발독재와 1980년대 운동권의 패러다임으로는 2016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의 중심 가치로 '공감과 소통', '참여와 개방', '연대와 협치'를 제시, "정치에서 서로 반대편이 있어야 자기세력을 유지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극단적 대립만 남았다"며 "상대를 낙인찍고, 배척하는 뻔셈의 정치에 대화와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폐거리 정치가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함께 만들고 개방과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목표를 찾아가는 게 새 정치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시대정신으로 '격차 해소'를 꼽았고, '공정성장론'을 경제 정책의 제일 기조로 제시하며 증세의 불가피성도 거론했다.

공정성장론에 대해 그는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 목을 매는 경제는 이제 넘어야 한다. 개인도 기업도 개전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질책을 듣더라도 국민들께 증세에 관해 말씀드려야 한다. 전반적인 세금체제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층 및 소득 간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모든 개혁의 중심을 교육에 뒀어야 한다"며 "금수저", "흙수저" 시대의 절망을 깨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정치 주체에 대해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며 "30, 40대 우리 사회의 허리가 정치의 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하고,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영입 1호'... 표창원 새정치 입당

영입카드로 반전 모색... 안철수 의원과 주도권 다툼 본격화

거취 압박 등으로 벼랑 끝에 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7일 '영입 1호'인 표창원 범죄과학 연구소장을 입당시키는 등 인재 영입 카드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성탄절 연휴 직전인 지난 24일 양산으로 내려가 이날 오전 상경한 직후 내놓은 '양산 구상'의 첫 결과물이다.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 기초를 발표하던 같은 시각, 문 대표가 직접 참석했던 가운데 표 소장의 입당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맞붙을 뉘음으로써 양측 간 주도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인물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기 선대위 체제 결의를 위해 수도권·중진 의원들이 소집한 의원간담회에 앞서 이러한 입장을 담은 것을 놓고 당내 2선 후퇴 내지 사퇴 압박에 대한 '마이웨이' 의지의 재확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 대표 측 관계자는 "문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을 누차 얘기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문 대표도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우리가 설령 좀 작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비주류의 연세탈당으로 인한 분당 상황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 측은 며칠 전 표 소장이 영입 제안을 최종 수락한 뒤 입당 공식화 일정을 최대한 서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표 소장은 내년 총선에서 경기 용인 분구 지역 출마 등이 거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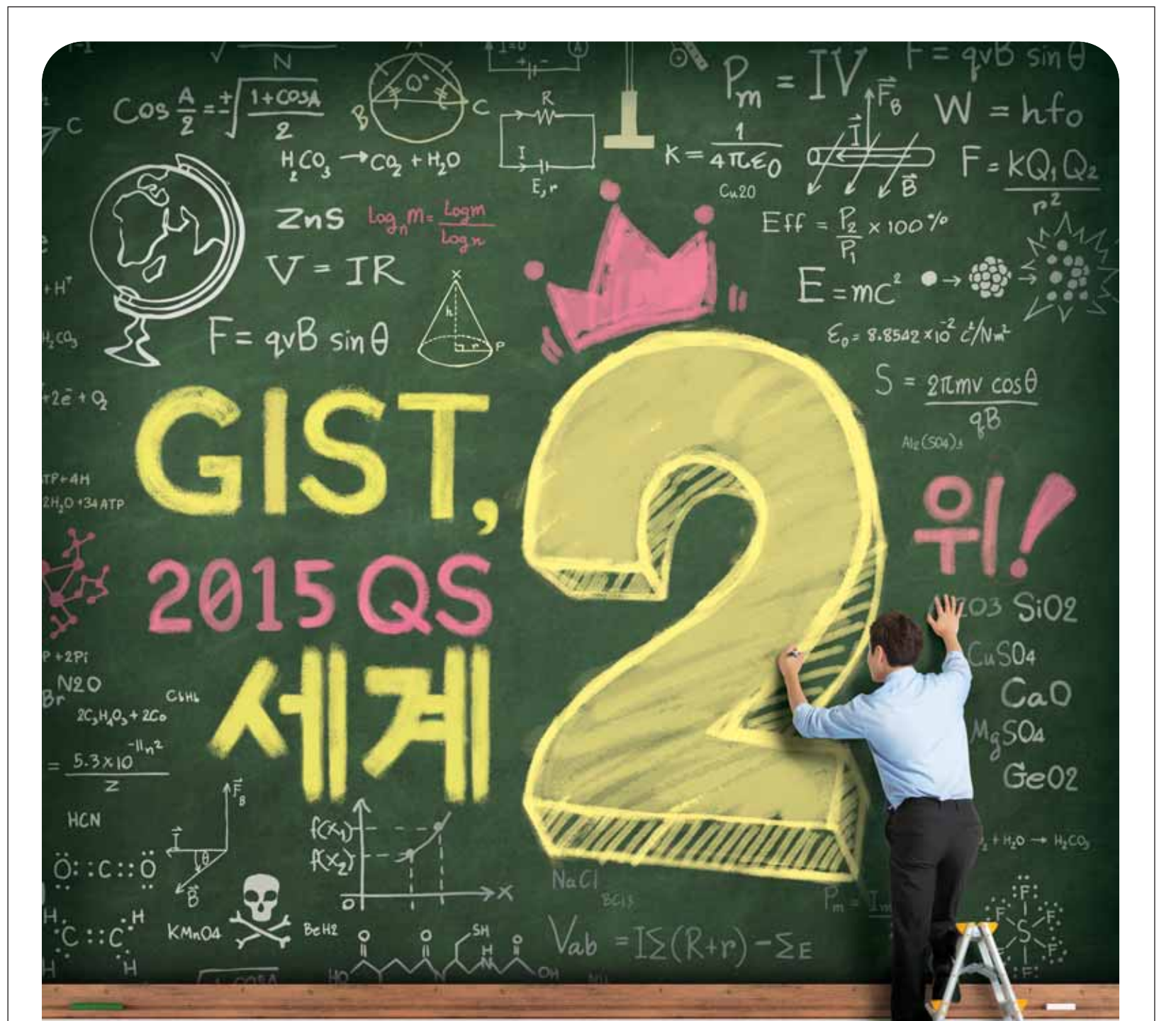
문 대표가 외부영입 1호로 국영민 댓글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에 앞장서며 현 정부에 선명하게 각을 세운 표 소장을 내세운 것은 당 정체성에 있어 선명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진보 색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 탈당 이후 인터넷 입당을 통해 '열혈 당원'을 대거 총원하고, 당 정책위의장에 개혁성향 강경파인 이복희 의원을 임명한 연장선에서 일단은 '왼쪽'을 두텁게 해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한 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중도를 겨냥한 외연 확장으로 옮겨가겠다는 단계적 전략이라는 것이다.

문 대표는 전날에는 전교조 출신의 정찬모 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을 직접 찾아가 출마를 권유하기도 했다.

안 의원이 새정치의 일성으로 '합리적 개혁 노선'을 제시한 가운데 노선 면에서 선명한 인물군으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어 보인다.

당 주류 쪽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외당과의 통합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 GIST 세계 2위 달성!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5 QS 세계대학평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Rank	University	Location
1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audi Arabia
2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GIST)	South Korea
3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USA
4	Princeton University	USA
5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UCSB)	USA
6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STECH)	South Korea
7	Ecole normale supérieure, Paris	France
8	Harvard University	USA
9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USA
10	KAIST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South Korea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